

경기도

축산분야 국비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

경기도는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축산분야 국비 대폭 확대 지원과 12개 분야 제도개선 등을 대정부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여기엔 올해 경기도 축산분야 국비지원 42개 사업 397억 원에서 10개 사업 832억 원을 추가한 총 52개 사업 1,229억 원으로 확대해 줄 것과 축산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어려움을 주는 제도를 12개 분야로 분류해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비 추가요청 832억 원은 ▲기존의 도 자체사업의 국비지원 전환 4개 사업 84억 원, ▲신규 국비지원 3개 사업 68억 원, ▲국비지원 확대 3개 사업 680억 원 등이며, 제도개선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육우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정책자금 융자금 상환연장 및 금리인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소모성가축질병 백신 지원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축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사료값 상승 불안심리가 겹쳐 축산 농가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FTA대책으로 2016년까지 축종별 생산성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지난해에는 41개 사업에 2,106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는 2,101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사업비의 10%를 도비로 추가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 구제역 피해농가에 경영자금으

로 지원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상환기간 2년 연장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예산 추가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세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도 경기침체 여파로 감소해 도비예산 추가지원 등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춘배 도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축산분야는 FTA 발효, 가축가격 하락 및 사료값 상승세 등 위기상황이 지속돼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위기상황 조기극복과 개방화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축산농가는 솔선해 사육두수 감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해야 하고, 소비자도 축산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품질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 생산성 향상 목표(2016년까지)

구분	2011년	2013년	2016년
한우: 1등급이상 고급육 출현율	64%	→ 70%	80%
젖소: 1두당 연간 우유생산량	8.3톤	→ 8.8톤	9.5톤
돼지: 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	15.2두	→ 17.5두	20두
닭: 육계 ㎏당 생산비	1,377원	→ 1,340원	1,300원

충청북도

충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

충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봄을 맞아 자연계 먹이 고갈과 시 발생지역인 호주, 동남아 등지에서 여름철새 유입이 맞물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우려돼 닭과 오리 등의 면역력을 키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1억1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닭·오리 32농가에 면역증강제 2만870kg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장 여건에 맞는 제품을 농가가 직접 구입해 사료 1톤당 1~2kg을 혼합·급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원 제품이 각종 효소와 효모, 지용성 비타민, β-글루칸 등의 성분 함유로 가금류 면역증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농가 지도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축산농가에 축사소독약품 공급

청주시 흥덕구는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한다.

구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

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구축을 위해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20호에 소독약품 523병을 공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소독약품공급으로 가축 감염병의 원인인 파리, 모기 등을 방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전염병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내 축산농가 임상관찰을 통해 구제역 및 시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제 돌입

경상남도는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시 차단방역을 위해 유입 가능 경로별 집중예찰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양계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축산 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장 종사자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양산 등 산란계 집단 사육지의 경우 주 1회 이상 사육농가를 방문해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시설 가동,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폐사축방치 등 농가준수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도내 사육중인 가금류(닭, 오리, 메추리, 꿩 등)와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재래시장 유통가금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및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529농가를 대상으로 시 유입경로별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만8621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고병원성 시의 도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 1/4분기 시 상시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시는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3월 한 달 동안 오리를 사육하는 231농가를 대상으로 종란과 분변 등 검사시료를 채취해 면역 형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검사와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로 나눠 진행됐다.

검사 결과 2011년 도내에 큰 피해를 줬던 고병원성 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저병원성 시가 나주시·영암군 등 8개 시군, 12개 농장에서 확인돼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 및 임상관찰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 저병원성 시는 나주와 영암에서 각 3농가, 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 각 1농가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철새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를 경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닭·오리를 비롯한 가금 사육 농가에서 축사를 매일 소독하고 그물망을 설치하며 농장 내 사료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야생조류의 접근을 적극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매일 오전·오후 임상관찰을 실시해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과거 고병원성 시가 4월까지 발생한 바 있고 최근 저병원성 시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자연 햇볕, 환기 등 동물복지형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해 다시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종계장에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백신 공급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종계(씨암탉)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도내 종계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에 대해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백신을 공급한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닭 마이코플라스마병은 주로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호흡기 질병과 관절염을 유발하는 마이코플라스마성 관절활막염을 일으킨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된 병아리에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약제를 투여하더라도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고 있는 질병이다.

올해 공급하는 물량은 8만 6천700마리 분으로 도내 종계장의 종계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

시해 감염된 농장에는 사독백신을, 감염되지 않은 농장에는 생독 또는 사독백신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종계장 경영자에게는 백신접종 후 예방 백신 수불부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축산위생사업소 관계관 입회하에 백신 후 남은 빈병을 폐기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농장 경영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농장을 소독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 및 차단방역을 통해 농장 내 병원체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농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방역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지난해 도내 종계장에 대해 마이코플라스마병 등 법정 가축 전염병 5종 1만21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종계장 질병 청정상태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무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무안군이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지난 3월 31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2억원을 들여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등록농가에 한해 2개월령 이상 한우, 육우, 젓소와, 돼지, 닭 등 관내 사육 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건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험금은 75%를 보조 지원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5%만 부담하게 된다.

무안군은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

을 받아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및 자연재해, 질병, 축사화재에 취약한 농가 등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70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 눈피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농가의 실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황금 닭 가공공장 준공

전남 강진군에 황금 닭 가공공장이 건립되어 황금 닭 가공과 유통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되어 농가들의 사육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에 들어선 황금닭 가공공장은 16억여 원의 사업비로 3,661㎡의 면적에 1,520㎡ 규모로 건립되었는데, 친환경 황금 닭을 포장육과 튀김닭용 염지육 4톤, 부분육 5,000수 등 단순 육가공은 물론 떡갈비 7톤, 훈제 3,200수 등 완전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련의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모든 시설은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일 가공공장 준공식에는 관계 기관·단체,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황금 닭 생산사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회사법인 황금주식회사 윤

원주 대표의 경과보고와 강진원 강진군수,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 가공 공장 시찰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참석자들은 전시되어 있는 황금 닭 가공제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황금 닭은 황금 한약재를 첨가한 황금 생균제 급여로 닭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어 인공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항생제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높은 강진군 대표 브랜드이다.

전라북도

도매 축산물의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확대 추진

전북도가 도내 축산물의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소 14톤, 돼지 280톤, 닭 900톤 등 총 1194톤의 축산물을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했다. 쇠고기는 참예우, 돼지고기는 김제목우촌·완주신화·무진장축협, 닭고기는 (주)하림에서 납품에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0% 늘어난 1,800톤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소 50톤, 돼지 550톤, 닭 1,200톤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서울에 본사나 지사를 둔 업체로 납품 자격을 제한하면서 물량확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내 업체의 서울지역 진출 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서울 납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

장이다.

또한 서울시가 하반기 중 시·도에 '친환경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도내 업체가 공급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도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완주군 가축방역사업, 13종 질병에 예방백신 공급

완주군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별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가축방역사업은 탄저·기종저 등 질병 발생 시 폐사나 유사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 13종의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牛) 사육농가에 탄저·기종저 혼합백신(3000두), 전염성 비기관염(3500두), 유행열(6000두), 아까바네병(4000두), 설사병(3200두) 등 5종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돼지(豚) 사육농가에는 열병·단독(2만3000두), 일본뇌염(1400두), 유행성 설사(1000두) 등 3종을 공급한다.

또 양봉 농가에 응애류(2만1600군), 노제마병(2만1600군), 낭충봉아부패병(2만1600군)과 닭 사육농가에 뉴캐슬병(617만수), 개 사육농가에 광견병(5000두) 백신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중 소 및 개 사육농가에 대한 약품의 경우 13개 읍·면 담당 공수의(4명)를 통해 공급되며, 돼지·꿀벌 사육농가에 공급되는 예방약품은 각 협회를 통해 공급받으면 된다. 